



“축구에 이어 야구도 승전고를 울린다”  
12월1일(이하 한국시간) 도하 아시안게임 공식 개막일을 하루 앞두고 사전 경기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야구대표팀이 남자 축구에 이어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준비하고 있다.

# 오늘은 야구가 승전고 울린다

## 대만과 결승전 같은 일전

### 남자농구, 바레인과의 예선

아시안게임 3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한국 야구는 30일 오후 3시 카타르 도하의 알라얀 스포츠클럽 야구장에서 대만과 금메달의 향방을 가늠할 일전을 치른다.

속적 일본이 프로 선수들을 제외하고 사회인 야구 선수들로 팀을 구성한 만큼 6게임이 풀리므로 치르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대만만 꺾는다면 금메달을 예약한 것과 다를 없다.

한국은 프로야구의 정상급 투수 손민한(롯데)과 류현진(한화) 카드를 꺼내들고 아시아 최강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만리장성’ 중국을 꺾고 극적인 우승을 차지한 한국농구대표팀도 이날 예선 1차전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전력을 점검한다.

바레인은 한국과 같은 E조에 속한 이란, 요르단, 카타르, 시리아에 비해 전력이 한 수 아래로 평가되지만 현재 한국선수들의 컨디션으로 볼 때 결코 쉬운 경기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한국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 김승현(대구 오리온스)과 슈터 방성윤(서울 SK)이 부상 중인데다 백업 멤버 양희종(연세대)마저 무릎 인대를 다쳤다는 우울한 소식이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한국대표팀은 국보급 센터 서장훈(서울 삼성)에다 미국프로농구(NBA)에서 뛰었던 국내 최장신 하승진 등 젊은 선수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한국농구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국 여자배구도 메달로 가는 첫 관문에서 북방 대만과 만난다.

김명수 감독이 이끄는 여자배구 대표팀(세계랭킹 8위)은 이날 밤 8시(이하 한국시간) 최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킨 대만(세계 23위)과 첫 경기를 갖는다.

세계랭킹 1위 중국에 이어 은메달을 노리는 한국은 대만을 이기면 8강전에서 유리한 대진표를 손에 쥐어 메달 획득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한국 여자축구대표팀도 이날 밤 11시15분 카타르 도하의 카타르스포츠클럽에서 대만을 상대로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B조 1차전을 치른다. /최재호기자 lion@



지난 28일(한국시간) 밤 카타르 도하 알 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B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한국의 박주영이 두번째 골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 ■ 숫자로 본 야구

0-亞연맹소속 올림픽 우승국 없어

1-야구월드컵 우승국 한국이 유일

한국 야구대표팀이 도하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DAGOC)가 배포한 ‘숫자로 본 야구’ 자료에서 대부분 항목을 장식했다.

타격 3관왕, 투수 3관왕을 이룩하며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를 짊어질 차세대 스타로 확실한 자리잡은 이대호(롯데), 류현진(한화)은 젊은 나이로 화제를 끌었고 47세이브로 아시아 한 시즌 최다 세이브 기록을 작성한 오승환(삼성)도 중요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숫자로 풀어본 야구’는 1개도 어렵다는 타이틀을 3개씩이나 달성한 이대호의 나이 ‘24’와 류현진의 나이 ‘19’에 비중을 두고 돌

을 소개했다.

이병규(전 LG)와 박재홍(SK)은 숫자 ‘2’로 요약됐는데 아시안게임 3번째 금메달을 노리는 두 선수로 소개됐다.

‘0’은 아시아야구연맹에 소속된 국가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적은 아직 없다는 것을 뜻했다.

단 아시아 국가 중 1982년 서울에서 세계야구선수권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야구월드컵’에서 한국이 정상에 오른 게 유일해 ‘1’로 설명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베어벡호 아쉬움 많은 첫 승

## 방글라데시에 3-0 완승 불구

##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족 여전

20년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사냥에 나선 베어벡호가 가볍게 첫 승리를 따냈지만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핀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23세이하 축구대표팀은 28일 밤(이하 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북서쪽 알-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하아시안게임 남자축구 B조 조별예선 1차전에서 전반 2분 이천수, 후반 14분과 29분 박주영의 연속골로 방글라데시를 3-0으로 눌렀다.

첫 단추는 그런대로 꿰었지만 우승을 목표로 하는 베어벡호로서 경기 내용 면에서 아쉬움으로 골문을 깨놓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8위에 B조 최약체로 꼽히는 방글라데시는 애초부터 한국의 상대가 아니었다.

한국은 정조국, 이천수를 전방에, 염기훈과 최성국을 좌·우에 놓고 초반부터 일방적인 공세를 폈다.

전반 2분만에 첫 골이 터졌다. 정조국의

스루패스를 받은 이천수는 상대 수비진이 미처 전열을 정비하기 전 강력한 오른발 대각선 슈트로 골문을 깨놓았다.

하지만 이후 후반 초반까지 베어벡호의 공격은 답답했다.

측면 크로스에 세 차례나 자책골 위기를 맞은 방글라데시는 페널티 박스 안에 7~8명이 들어와 밀집 방어를 폈다.

경기가 풀리지 않자 김치우가 전반 28분 중거리슛으로 돌파구를 열어보려 했지만 무

위였고 3분 뒤 염기훈은 결정적인 찬스에서 첫발질을 하고 말았다.

베어벡 감독은 후반 박주영을 수비수 오범석 대신 투입해 공격력을 배가했고, 다행히 박주영의 골 퍼레이드로 3점차 승리를 올려 겨우 체면치레를 할 수 있었다.

한편 1차전 승리를 쟁긴 한국은 12월2일 밤 11시15분 알-아라비 경기장에서 베트남과 B조 조별예선 2차전을 갖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카타르 미녀 선수들의 미소  
지난 28일(한국시간) 제15회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의 미녀 선수단이 자국의 국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주영 도하만 가면 힘난다

“처음은 아시안게임 분위기 재미있다”  
‘도하의 영웅’ 박주영(21·서울)이 카타르 도하에서 다시 한번 팔팔 날았다.

박주영은 28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북서쪽 알-가라파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방글라데시와 2006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2차예선 첫 경기에서 2골을 터트리며 득점포에 시동을 걸었다.

박주영은 전반에는 벤치를 지키다 후반 들어 오범석(포항) 대신 교체 출전, 팀 동료 정조국과 투톱 스트라이커로 나섰다.

박주영 효과는 금세 나타났다. 전반 내내 상대 밀집 수비에 공격 투트를 제대로 찾지 못하던 한국은 곧바로 공격에 활기를 띠었다.

박주영은 특히 한 템포 빠른 슈팅 타이

밍으로 상대 골문을 흔들기 시작했다.

후반 14분 김치우(인천)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가슴으로 받아 수비수 한 명을 따돌린 뒤 기습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갈랐고, 후반 29분에는 정조국이 문전에서 헤딩으로 떨궈준 볼을 달려 들며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박주영에게 도하는 기분 좋은 추억을 간직한 장소.

20세 이하 청소년대표였던 지난해 1월 도하에서 열린 카타르 국제축구대회에서 무려 9골을 몰아넣으며 우승컵과 득점상, 최우수선수상(MVP) 등 상이런 상은 독식했다.

올해 프로 2년차인 박주영은 독일월드컵 이후 팀내에서도 주전으로 뛰지 못하

## 작년 청소년축구 9골

## 방글라데시전서 2골

다 성인 대표팀 명단에서 계속 탈락하며 슬럼프에 빠졌다.

하지만 박주영의 슬럼프 극복을 믿은 핀 베어벡 대표팀 감독은 도하 원정길에 박주영의 이름을 과감히 집어넣었다.

신뢰를 지키려듯 박주영은 최근 골 감각을 되찾았다. 지난 14일 일본과 올림픽 대표팀 간 평가전에서도 선제골을 넣었고, 도하 입성 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가진 현지 클럽 알 자지라 2군 팀과 연습경기에서도 골맛을 봤다.

박주영은 경기 직후 공동취재구역 인터뷰에서 “카타르에 다시 온 건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아시안게임에 처음 와보니 색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 (선수촌에) 사람들도 많고 재미있다”고 말했다.